영 김 연방하원의원 '57/60 프로젝트' 현장 방문

▲ 영 김 의원(가운데)이 낸시 라이온스 다이아몬드 바 시장(오른쪽), 코리 모스 인더스트리 시장(왼쪽) 등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 57/60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영 김 의원실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 39지구)은 지난 7일 57번 프리웨이와 60번 프리웨이가 교차하는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57/60 프로젝트)가 진행될 현장을 둘러보고 낸시 라이온스(Nancy Lyons) 다이아몬드 바 시장, 코리 모스(Cory Moss) 인더스트리 시장 등 57, 60번 프리웨이 주변 도시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 의원은 "57/60 프로젝트를 통해 상습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의회 입성 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부티지지 교통장관에게 지원금 승인을 촉구하는 등 자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57번, 60번 주변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것이 즐겁고 유익했으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CA-39 지역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낸시 라이온스 시장은 "57/60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 이라면서 김 의원의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또 코리 모스 시장은 "김 의원이 57/60 프로젝트를 가장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삼고 의회에서 우리 지역을 강력히 옹호해 왔다는 것에 고마움을 전한다." 고 말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인근에서 병합되는 57, 60번 프리웨이 구간은 LA, 오렌지카운티, 샌버니디노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등과 연결되며, 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교통체증이 심한 프리웨이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 운전면허 한국어 시험 폐지 중단 명령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중단' 을 추진(관련 기사 본보 1367호 15쪽 '가주차량국, 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어 서비스 중단 추진')했던 가주차량국(DMV)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7일 가주차량국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현행 25개 언어에서 7개 언어로 축소해 시행하려는 작업에 중단 명령을 내렸다. 7개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르메니아어, 인도어, 파키스탄어, 베트남등이다. 이로 인해 영어에 취약한 한국인 등 7개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됐다.

가주차량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LA한인회 등 50여 개의 한인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 LA한인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과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등에게 가주차량국의 계획을 알리고 가주차량국의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중단 철회를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알려진 바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중단 명령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지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주상원 지도부는 가주차량국이 추진하던 필기시험 언어 축소 계획이 알려지자 이 계획의 문제점을 들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시정을 건의했고 주지사도 건의를 수용해 신속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해도 가주차량국이 행정권을 사용해 재추진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완전한 계획 철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LA총영사관, 한인 청년 취업 지원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 박람회 포스터. 사진=LA 총영사관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이 한인 청년들의 구직난 해소와 취업 역량 제고, 취업 기회 확대, 구인기업들에게는 편리하고 폭넓은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연다.

이 행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LA무역관(관장 김승욱)가 주최, 잡코리아 USA(대표 브랜든 리) 주관으로 오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미 서부시간 기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12년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으며 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 가운데 미 서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LA총영사관은 금년 온라인 취업박람회 행사를 통해 LA와 뉴욕 등 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한인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총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2,000여 명의 구직자를 모집하며 특히, 'KOTRA 글로벌 취업관' 을 별도로 운영하여 KOTRA LA무역관이 뉴욕무역관과 협업하여 OPT, H1B 등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 50여개를 모집하여 유학생 등 한인 청년들의 비자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KOTRA LA무역관과 잡코리아 USA에서 공동 개발한 온라인 취업박람회 웹사이트(www.jobkoreausa.com/jobfair)를 이용하면 구직자들은 이력서 접수(5월 21일까지)부터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까지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채용 매칭 지원 이외에도 유학생들과 한인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웨비나를 제공하여 미국 비자별 취업 전략과 법률 상담, 전문가/선배들이 들려주는 미국 취업 성공 이야기 등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행사도 다수 준비될 예정이다.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1. 풍부한 실무 경험
2. 정확한 회계 업무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 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California e file 빠른 환불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UC San Diego졸업
미 해양 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역임
Member of CS

714.522.1120 FAX. 714.522.1121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